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	과 장 정성창	042-481-8172
		사무관 이동훈	042-481-8241
 	2018년 10월 12일(금)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.		

『발명체험교육관』 설치 교육청 공모

- 체험형 발명교육 강화와 차세대 발명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-
 - 올해 10월 말 선정, 내년 하반기 개관 목표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창의성이 풍부하고 혁신 잠재력을 지닌 미래 발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‘발명체험교육관’을 설립하기로 하고, 이를 유치할 시·도 교육청을 공모한다.
- 특허청과 선정된 교육청은 지역 청소년에게 체험·심화 발명교육과 교원들에게는 체계적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.
 - 특허청은 시설설치, 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하고, 선정된 교육청은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과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.
 - * (시설) 발명 체험 전시관, 발명상상실·발명창작실, 인벤션홀, 영상실 등
 - (기자재) 3D 프린터, 레이저커터, 공구·공작 기구 등
 - (교육) 심화·체험 발명교육 과정, 발명 원리 탐구, 교원 연수 등
- 현재 초·중·고 정규교과(실과, 기술·가정 등)에 발명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교육여건상 이론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전국 학교 등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(전국 201개)는 교실 2개 정도의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체험·실습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.

- 발명체험교육관은 청소년들이 발명에 대한 원리와 실물을 직접 체험해 창의력·문제해결능력·도전정신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.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체험·심화형 발명교육을 제공해 차세대 혁신가로 키운다.
- 중·고 교원에게는 신규·심화 교수법, 지도사례 연구, 최신 기자재·교구재 활용기법 등 체험위주의 연수를 제공하여 발명교육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.
- ‘발명체험교육관’의 운영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명교육을 진행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된 시·도 교육청이 전담한다.
- 교육청은 교원파견, 교육과정 운영, 유관기관 협력 등 발명체험교육관 운영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.
- 한편, 특허청은 발명교육 관련 프로그램, 전문가 지원, 관계부처·교육청 협력과 같은 정책적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.
- 설치를 희망하는 시·도 교육청은 사업계획 등을 담은 발명체험교육관 유치 신청서를 특허청으로 제출(10.19)하면 되고,
- 특허청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사, 발표심사 등을 통해 10월 말에 최종 시·도 교육청 1곳을 선정한다.
- 박원주 특허청장은 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.”며 “발명체험교육관을 통해 우리나라 발명교육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교육 현장에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※붙임 : ‘발명체험교육관 설치 계획(안)’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 이동훈(☎ 042-481-82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발명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·융합형 인재 육성의 핵심적 교육 수단이며,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발명교육을 강화 추세
- 교육 현장의 체험형 발명교육 확대 요구, 검증된 체험·심화 교육의 체계적 확산 등 「발명교육법」 제정(17)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

□ 기본 운영 방향

- 체험·심화형 발명교육을 통해 지역의 혁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·육성하여 차세대 혁신가로 육성

- (학생) 로봇, 코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보고, 원리를 체득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·제작 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* 심화 발명 체험 교육, 발명 원리 탐구, 발명 전시관 운영 등
- (교원) 초등·중등 교원대상으로 신규·심화 발명교육 교수법, 지도 사례 연구, 최신 기자재, 교구재 활용기법 등의 연수로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신장

□ 운영 체계

- 교육청 직속 기관으로 설치·운영하고, 특허청은 축적한 발명교육 경험을 전수하여 전국 단위로 확산 추진(한국발명진흥회 전문인력 활용)
 - * (특허청) 정책 총괄, (교육청) 관내 발명교육 운영, (발명진흥회) 콘텐츠 개발·적용
- (조직) 관장, 3개 팀(교육총괄, 전시운영, 운영지원) 총 15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발명교육 운영 지원
 - * 발명진흥회(4명), 교육관 자체 채용(4명), 발명교육 담당 교원 파견(7명) 등

□ 시설 및 예산

- (시설) 체험·심화형 교육을 위해 시·도 교육청 소유의 부지를 활용하고, 신축 또는 폐교 리모델링 등 추진

- (구성) 체험전시관(1층), 발명상상실 및 발명창작실(2층), 다목적 강당, 행정실(3층) 등 3층 규모의 시설 구축(연건평/총대지 : 4,500㎡/6,600㎡)
- (기자재 등) 최신 기자재(3D 프린터, 레이저커터 등), 교구재(드론, VR, 아두이노 등)를 구비하여 체험·심화 발명교육 환경을 조성
- (예산) 특허청은 '19년에 총 47.6억원 지원(시설구축비·기자재구입비 42.9억원, 운영비 4.7억원), 교육청은 최소 국비지원 이상의 예산을 매칭 부담
- '20년부터는 발명체험교육관의 지속적·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간 운영비 확보 추진(국비·지방비 최소 16.8억원 이상)

□ 선정 방안

- 시·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교육청을 선정(10월 하순)
 - (기준) 정량평가(60점, 교육관 설립지원 적절성)와 정성평가(40점, 교육관 설립의 추진역량)를 합산한 점수로 선정
 - (절차) 외부전문가를 과반 이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*를 구성(7명), 현장실사 결과 및 선정기준에 의해 평가 실시

※ 발명교육, 지식재산 정책, 체험·전시, 관리·운영 분야 등 전문가

□ 추진 일정

- 선정된 교육청에 임시통보를 하고, 예산확정시(국회) 정식통보 후 특허청-시·도 교육청간 협약 체결 추진

< 추진 일정(안) >

